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

오진영**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언어병리전공

이은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요약》

본 연구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대상자는 서울·경기 또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표준화검사결과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각 13명씩 총 26명이었다. 실험 과제는 문맥이 제시된 상황에서 관용어의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라 친숙하고 투명한 관용어(familiar-transparent), 친숙하고 불투명한 관용어(familiar-opaque), 친숙하지 않고 투명한 관용어(unfamiliar-transparent), 친숙하지 않고 불투명한 관용어(unfamiliar-opaque)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관용어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다형 선택 과제를 제시하였다. 선다형 선택 과제의 선택지에는 관용적 해석(idiomatic interpretation), 문맥과 관련된 해석(contextual plausible interpretation), 문맥과 관련 없는 해석(contextual implausible interpretation), 문자적 해석(literal interpretation)을 포함시켰다. 두 집단 간에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라 관용어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2)×친숙도(2)×투명도(2)의 삼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오류는 오류유형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점수는 일반아동 집단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집단 내에서는 친숙도 및 투명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관용어 이해과제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문맥과 관련된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고 다음으로 문자적 오류, 문맥과 관련없는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은 문맥과 관련된 오류가 대부분이었고 문자적 오류와 문맥과 관련없는 오류는 드물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이 비슷한 언어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관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문맥 활용의 어려움과 추론 능력 및 비유 의미 유추 능력에서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 관용어, 관용표현, 비유언어, 지적장애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pleasure0123@hanmail.net)

*** 교신저자(spllee@dankook.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관용어는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전체 어휘 중 관용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구효진, 2011). 따라서 관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용어는 반드시 습득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성소연, 2008). 또한 관용어는 일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의 가치를 담고 있어서 발화자의 의도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적절하고 다양한 관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느낀 것, 경험한 것, 목격한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송현아, 2008). 그러나 관용어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지라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관용어는 구성 성분의 의미만으로는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며, 구성 단어의 뜻과는 별개의 뜻을 가진 어휘 복합체가 문장 내에서 하나의 구성성분으로 기능하는 언어단위이기 때문이다(박영준·최경봉, 2002). 비유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이다가 하나의 굳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용어의 뜻은 구성 어휘의 개별적 뜻을 합해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박영준·최경봉, 2002). 예를 들어 ‘미역국을 먹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등의 관용어는 구성 단어의 뜻과는 별개의 뜻인 ‘시험에 떨어지다’, ‘아는 사람이 많다’, ‘쓰쓸이가 후하고 크다’, ‘수단이 좋거나 많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관용어의 유창성은 언어 사용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국어 관용어의 적절한 이해와 사용은 의사소통 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언어 사용 능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신선미, 2006).

비유 언어(figurative language)는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TV, 책, 교실, 일상대화 등을 통해서 매우 자주 접하게 된다(Milosky, 1994). Lazar et al.(1989)에 의하면 유치원(5-9세) 교사들의 5% 가량이 발화 속에 관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8학년(13-14세)이 되면 20%까지 증가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의 전체 발화 중 관용어는 11.5% 사용하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들의 관용어 사용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관용어에 대한 학습은 1학년에 기초적인 내용으로 등장하여 5학년에 기초 지식을 배우고,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6학년까지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였다(이광순, 2004). 한세경(2004)은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교과서 문장에서 관용어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광주(2002)는 초등학교 교사의 77.5%가 관용어를 ‘보통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고, 7.5%가 ‘가끔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관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용어에 대한 발달 연령을 살펴보면, Lodge와 Leach(1975)는 9-12세의 일반 아동이 관용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20%에서 50%만 관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였다. Prinz(1983)는 9세는 50%, 12세는 80% 정도 관용어를 이해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용어의 의미 설명은 각 그룹마다 20%와 35%로 이해보다 낮다고 하였다. 비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11세를 전후로 급격하게 발달한다(Cain, Towse, & Knight, 2009; Levorato & Cacciari, 1995; Nippold, 1998). 이광주(2002)는 초등학교 학생의 관용어 이해와 사용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1학년은 남학생 27.9%, 여학생 14.1%가 관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2학년은 남학생 33.3%, 여학생 24.8%가 관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50% 이상 관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사용 정도는 고학년(4, 5, 6학년)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남학생 27.8%, 여학생 33.3%가 ‘관용어를 써 본적 있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관용어를 포함한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학령기 이후에 발달하는데 그 이유는 은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인지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서정수, 1982). 따라서 관용어의 이해는 초기 아동기부터 학령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까지 점차적으로 향상된다(Ackerman, 1982; Cacciari & Levorato, 1989; Gibbs, 1987; 1991; Laval, 2003; Levorato & Cacciari, 1992; 1995; Nippold & Martin, 1989; Nippold & Rudzinski, 1993; Nippold & Taylor, 1995; Nippold, Taylor, & Baker, 1996).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로 친숙도(familiarity), 투명도(semantic analyzability, transparency), 문맥(context) 등이 있다(Roch & Levorato, 2010). 친숙도는 의사소통 중에 관용어 발생 빈도에 따라 변화된다. ‘언어 경험 가설(language experience hypothesis)’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자주 표현되는 관용어를 아동들이 더 쉽게 이해한다(이진숙·박소영, 2010; 최송아, 2012; 현혜숙, 2010; Kemper, 1986; Nippold & Haq, 1996; Nippold, 1991, 1998; Nippold & Taylor, 1995, 2002). 관용어에 노출되는 기회는 습득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몇몇의 연구자들은 관용어에 노출된 것만으로 관용어 습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Cain, Oakhill, & Lemmon, 2005; Levorato & Cacciari, 1992). Cain, Oakhill과 Lemmon(2005)은 친숙한 관용어일수록 이해도가 높기는 하지만 친숙도 그 자체만으로 관용어 이해의 발달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은 어린 아동일수록 관용어의 이해에 있어서 친숙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숙도의 효과는 줄어든다고 하였다. 속담 이해능력을 연구한 Nippold와

Haq(1996), 오소정(2001)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숙도의 효과는 줄어든다고 하였다. 투명도는 관용어의 구성 단어가 비유적 의미의 해석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투명한 관용어가 불투명한 관용어보다 이해하기 더 쉽다(성소연, 2008; 현혜숙, 2010; Caillies & Sourn-Bissaoui, 2006; Gibbs, 1991; Levorato & Cacciari, 1999; Nippold & Taylor, 2002). 또한 Nippold와 Taylor(2002)는 친숙하고 투명한 관용어가 친숙하지 않고 불투명한 관용어보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다고 하였다. 그러나 Abrahamsen과 Burke Williams(2004)는 3, 5학년 일반 아동과 학습장애 아동 모두 투명한 관용어보다 불투명한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속담 이해능력을 연구한 오소정(2001)도 학령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세 집단 모두에서 투명한 속담보다 불투명한 속담을 더 쉽게 이해하였다고 한다. 현혜숙(2010)의 연구에서는 집단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일반 아동은 불투명한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하였고,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투명한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하였다.

관용어는 비유적 언어에 해당하는데, Nippold와 Fey(1983)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은유적 의미보다 사전적 의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Higham, Wegmann와 Woods(1999)도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또래 정상아동과는 달리 은유나 비유와 같이 직접적이지 않거나 함축적 의미인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들은 개념적 지식이나 언어적 지식에 한계가 있는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비유감각은 있으나 그것을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유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설명을 하였다. 즉 비유적 언어인 관용어는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습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적장애를 동반한 대상자들은 비유적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고, 비유적 언어가 상위 언어기술이기 때문에 학습할 기회가 적거나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은 다른 장애군보다 구인·구직 및 취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다. 특히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도 지적장애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은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관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투명도와 친숙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능력을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적장애인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관용어를 포함한 비유적 표현의 이해와 사용 능력에 대한 교육과 중재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질적인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 재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언어연령일치 일반 아동, 두 집단의 관용어 친숙도와 관용어 투명도에 따른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 2) 두 집단의 관용어 이해 과제 유형에 따른 오류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경기 또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표준화 검사 결과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각각 13명씩 총 2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비교집단을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신중호·이강희(2002)는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이해능력이 생활연령이 동일한 일반 아동의 언어이해능력보다 낮다는 상대적 정보보다는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절대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병운(1995, 1996)은 지적장애 아동의 화용능력은 생활연령이나 정신연령보다 사회연령과 더 깊은 관계가 있으며, 준언어적 영역이나 비언어적 영역보다 언어적 영역이 사회연령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을 생활연령이 동일한 일반 성인과 비교하지 않고 유사한 언어능력을 가진 일반 아동과 비교함으로써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관용어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1) 경도 지적장애 성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을 선정하였다.

- (가) 서울·경기 또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며 1년 이상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
- (나) 복지관이나 소아정신과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진단 받았거나, K-WISC-

- Ⅲ(곽금주 외, 2001) 결과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자
- (다)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외, 2009) 중 수용 어휘 등가연령이 10세 이상 16세 이하인 자
- (라)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KOSECT, 배소영 외, 2004) 결과 7세 평균 이상의 자
- (마) 시각장애, 청각장애, 행동 및 정서장애 등 중복장애가 없는 자

2) 일반아동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언어연령일치 일반아동을 선정하였다.

- (가) 서울·경기 또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나) 수용·표현 어휘 검사(REVT, 김영태 외, 2009) 중 수용 어휘 결과가 정상 범주에 있는 자
- (다)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KOSECT, 배소영 외, 2004) 결과 정상범주에 있는 자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아동, 두 집단의 생활연령 및 언어능력(수용어휘능력)의 기술통계량과 두 집단의 언어능력(수용어휘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표 2.1>에 제시하였으며 두 집단 간에는 언어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1> 두 집단(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t 검정 결과

	경도지적장애성인(n=13) 평균(표준편차)	일반아동(n=13) 평균(표준편차)	t
생활연령(세)	27.24(8.2)	10.5(1.57)	
수용어휘(원점수)	132.00(18.96)	132.08(15.36)	-.011

2. 연구 자료

1)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현혜숙(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관용어를 친숙하고 투명한 관용어(familiar-transparent), 친숙하고 불투명한 관용어(familiar-opaque), 친숙하지 않고 투명한 관용어(unfamiliar-transparent), 친숙하지 않고 불투명한 관용어(unfamiliar-opaque)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검사문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제작하였다.

- (가) 문맥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 (나) 문맥과제는 대화체를 사용하여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 (다) 보기는 선다형 선택 과제로 제작하였다. 각각의 보기는 관용적 해석(idiomatic interpretation), 문맥과 관련된 해석(contextual plausible interpretation), 문맥과 관련 없는 해석(contextual implausible interpretation), 문자적 해석(literal interpretation)으로 제작하였다.

2) 검사 문항 제작

본 연구의 검사 문항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각 유형별로 문항의 예를 <표 2.2>에 제시하였다.

- (가) 관용어의 친숙도는 조혜인(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A(자주 사용)와 B(간혹 사용)등급은 친숙한 관용어로, C(거의 사용안함)와 D(전혀 사용안함)등급은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로 분류하였다.
- (나) 선택된 관용어의 투명도는 임혜진(2007)의 연구에 따라 투명 +++++, 반불투명 +++, 반불투명 ++, 불투명 +, 불투명으로 분류하였다. 임혜진(2007)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임혜진의 분류 방식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투명한 관용어는 투명 +++++, 반불투명 +++로 분류하였고, 불투명한 관용어는 불투명 +, 불투명으로 분류하였다.
- (다) 이와 같이 선정된 관용어들이 일반 아동에게 적용하기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초등국어에서 관용어 표현 지도 방안 연구(이광주, 2002)와 초등학교 국어과 관용어 지도 연구(한세경, 2004)에서 선정된 관용어 목록을 참조하였다.
- (라) 친숙하고 투명한 관용어 18개, 친숙하고 불투명한 관용어 13개, 친숙하지 않고 투명한 관용어 18개, 친숙하지 않고 불투명한 관용어 17개로, 총 66개의 예비검사 문항을 제작하였다. 총 66개의 예비검사 문항은 문맥조건에서 선다형 선택 과제로 제시하였다.
- (마) 언어병리학 석사 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언어병리 전공자 15명에게 예비검사 문항을 풀어보게 한 후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남기게 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15명 중 한 명이라도 틀린 문항, 적절정이 떨어지는 문항, 일반 아동에게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수정하거나 제외하였다.

그 결과, 친숙하고 투명한 관용어 5개, 친숙하고 불투명한 관용어 5개, 친숙하지 않고 투명한 관용어 5개, 친숙하지 않고 불투명한 관용어 5개로 총 20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부록 1 참고).

- (바) 지적장애 3급으로 진단 받은 2명의 대상자에게 예비연구를 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문맥과 보기가 긴 경우 문항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정확하게 읽지 않고 답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 (사) 문항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문맥과 보기의 길이를 짧게 하였고, 수정된 문항을 언어병리학 석사 과정 이상의 언어병리 전공자 5명에게 풀어 보게 한 후 각 문항마다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아) 최종적으로 수정된 문항은 언어병리학 석사 과정 이상의 언어병리 전공자 13명에게 답해보게 한 후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남기게 하였다. 검사 결과, 모든 문항에서 100%의 정답률을 보였다.

<표 2.2> 관용어 이해 과제

관용어 이해 과제	
	관용어 이해 과제
	2. 다음 밑줄 친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친숙하고 투명한 관용어	<p>수정: 지금부터 제 말에 <u>귀를 기울이세요.</u> 내일은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 모두 집에 태극기를 다세요. 지태: 네 알겠습니다.</p>
	① 귀를 잡고 기울여라. (문자적) ② 태극기를 달아라. (문맥관련) ③ 관심을 가지고 들어라. (관용어) ④ 도서관에 오지 말라. (문맥관련 X)
	9. 다음 밑줄 친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친숙하고 불투명한 관용어	<p>준태: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장우: 약속한 친구에게 <u>바람 맞았어.</u></p>
	① 장우는 집에 일찍 들어왔다. (문맥관련) ② 친구랑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돌아다녔다. (문자적) ③ 친구는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문맥관련 X) ④ 친구가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관용어)

<표 2.2>

관용어 이해 과제(계속)

<p>친숙하지 않고 투명한 관용어</p>	<p>11. 다음 밑줄 친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p>
	<p>영희: 오늘 배탈이 나서 화장실 <u>문턱이 닳도록</u> 드나들었어. 재인: 약은 먹었어?</p>
	<p>①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관용어) ② 영희가 아파서 걱정된다. (문맥관련) ③ 문턱이 다 닳았다. (문자적) ④ 영희와 병원에 갈 것이다. (문맥관련 X)</p>
<p>친숙하지 않고 투명한 관용어</p>	<p>19. 다음 밑줄 친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p>
	<p>창민: 라면을 먹다가 체했더니 라면만 보면 <u>학을 떴</u>. 준영: 난 아이스크림이 그런데.</p>
	<p>① 매일 라면만 먹는다. (문맥관련 X) ② 라면에 그려진 학을 떴다. (문자적) ③ 라면을 먹다 체했다. (문맥관련) ④ 질려 버렸다. (관용어)</p>

3. 연구절차

1) 예비 연구

예비 연구는 연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문제점, 대상자가 실험 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하는지, 실험 과제에 대한 적절성, 실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지적장애 3급으로 진단받은 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장소는 연구자의 치료실이나 대상자의 집으로 조용한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실험과제 풀이 시 대상자 1은 10분, 대상자 2는 25분이 소요되었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는 쉬는 시간 10분을 포함하여 총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 과제를 풀이한 결과, 대상자 1은 문맥과 보기를 쉽게 읽고 풀었다. 대상자 2는 문맥과 보기가 짧고 익숙한 주제일 경우 문항에 대해 쉽게 읽고 풀었으나 문맥과 보기가 길거나 익숙하지 않은 주제일 경우 문항에 대해 하나하나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중도가 떨어져 정확하게 읽지 않고 대충 답을 표시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서울·경기 또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장소는 연구자의 치료실이나 대상자의 집으로 조용한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과제를 실시하였다. 실험 과제는 “여기 밑줄 친 부분의 뜻을 찾는 거예요. ‘밭이 넓다’라는 문장은 ‘밭의 크기가 넓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도 돼요. 문맥을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연습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과제를 풀게 하였다. 실험 과제는 대체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모든 대상자들은 1회에 모든 검사를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1) 관용어 이해 과제 채점 기준

대상자들이 표시한 답안은 3일 이내에 채점하였다. 대상자의 답이 정답일 경우 1점, 정답이 아닐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20점 만점이였다.

2) 관용어 오답 오류 분석

정답이 아닌 경우 오류 유형을 문맥과 관련된 해석 오류(contextual plausible interpretation), 문맥과 관련 없는 해석 오류(contextual implausible interpretation), 문자적 해석 오류(literal interpretation)로 분류하였다(<표 2.3.>참고). 오류 유형별로 빈도 및 오류 비율을 분석하여 두 집단이 오류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text{관용어의 오류 비율(\%)} = \text{오류형태별 빈도 수} / \text{총 오류 수} \times 100$$

<표 2.3> 보기문항의 유형

보기문항의 유형	문항 구성 내용
관용적 해석 (idiomatic interpretation)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관용어의 뜻
문맥과 관련된 해석 (contextual plausible interpretation)	관용어의 뜻과 관련 없고, 문맥과 관련된 해석

〈표 2.3〉 보기문항의 유형(계속)

문맥과 관련 없는 해석 (contextual implausible interpretation)	관용어의 뜻도, 문맥과도 관련 없는 해석
문자적 해석 (literal interpretation)	관용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

3) 신뢰도 분석

관용어 이해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의 20%를 추출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평가자는 제 1 연구자와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을 마친 언어치료사였으며 평가자 간 신뢰도는 100%였다.

4) 통계분석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아동의 두 집단 간에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집단 간 요인으로 친숙도와 투명도를 집단 내 요인으로 하여 삼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오류 유형은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기술통계에 의해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SPSS for Windows(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집단 간 관용어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정답률 비교 결과

두 집단 간 친숙도(친숙한 관용어,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와 투명도(투명한 관용어, 투명하지 않은 관용어)에 따른 관용어 과제 정답률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3.1>에 제시하였다.

<표 3.1> 집단 간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정답률 기술통계 결과

		친숙한 관용어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	
		투명한 관용어	투명하지 않은 관용어	투명한 관용어	투명하지 않은 관용어
경도지적 장애성인 (n=13)	평균	2.08	3.62	3.23	3.00
	표준편차	1.62	1.39	1.64	1.53
언어연령일치 일반아동 (n=13)	평균	4.85	4.92	4.69	4.46
	표준편차	.38	.28	.86	.66

두 집단 간에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3.2>에 따르면 집단에 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_{(1, 24)}=26.192, p<.001$), 친숙도 및 투명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아동의 관용어 이해능력이 경도지적장애 성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변인 간의 상호작용은 집단과 친숙도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과 투명도 간($F_{(1, 1)}=5.511, p<.01$), 친숙도와 투명도 간($F_{(1,1)}=11.790, p<.01$), 집단과 친숙도와 투명도 간($F_{(1, 1)}=5.838, p<.05$)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아동은 투명도가 낮은 관용어보다 투명도가 높은 관용어에서 이해능력이 높았으나, 지적장애 성인은 투명도가 높은 관용어보다 투명도가 낮은 관용어에서 이해능력이 높았다. 그리고, 친숙한 관용어에서는 투명도가 높은 관용어보다 투명도가 낮은 관용어에서 이해능력이 높았고,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에서는 투명도가 낮은 관용어보다 투명도가 높은 관용어에서 이해능력이 높았다. 3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아동은 친숙도가 높은 관용어에서는 투명도가 낮은 관용어에서 약간 높은 이해능력을 보였고, 친숙도가 낮은 관용어에서는 투명도가 높은 관용어에서 약간 높은 이해능력을 보였다. 이처럼 일반 아동은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라 점수의 차이를 보이지만 네 조건 모두에서 점수가 만점에 가까워서 큰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에 지적장애 성인은 친숙한 관용어에서는 투명한 관용어보다 투명하지 않은 관용어에서 높은 이해능력을 보였고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관용어보다 투명한 관용어에서 약간 높은 이해능력을 보였다. 특히 친숙한 관용어에서 투명도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집단 간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정답률 기술통계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집단	79.625	1	79.625	26.192	.000
오차	72.962	24	3.040		
집단 내					
친숙도	.010	1	.010	.008	.929
친숙도×집단	2.163	1	2.163	1.817	.190
오차(친숙도)	28.577	24	1.191		
투명도	2.163	1	2.163	3.435	.076
투명도×집단	3.471	1	3.471	5.511	.027
오차(투명도)	15.115	24	.630		
친숙도×투명도	7.010	1	7.010	11.790	.002
친숙도×투명도×집단	3.471	1	3.471	5.838	.024
오차(친숙도×투명도)	14.269	24	.595		

2. 관용어 이해에 대한 오류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 과제 유형에 따른 오류 유형은 문맥과 관련된 해석 오류 (contextual plausible interpretation), 문맥과 관련 없는 해석 오류(contextual implausible interpretation), 문자적 해석 오류(literal interpretation)의 세 가지이다. 두 집단의 오류유형별 빈도 및 오류 비율을 <표 3.3>에 제시하였다.

<표 3.3> 두 집단의 오류유형별 빈도 및 오류비율

	경도 지적장애 성인	일반 아동
문자적 오류	33 (31.13%)	2 (13.33%)
문맥과 관련된 오류	52 (49.05%)	11 (73.33%)
문맥과 관련 없는 오류	21 (19.81%)	2 (13.33%)
전체	106 (100%)	15 (100%)

경도 지적장애 성인의 전체 오류빈도는 106개로 일반 아동의 15개보다 7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오류 유형별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문맥과 관련된 오류가 52개, 문자적 오류가 33개, 문맥과 관련 없는 오류가 21개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은 문맥과 관련된 오류가 1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문자적 오류와 문맥과 관련 없는 오류가 각각 2개씩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문맥과 관련된 오류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을 대상으로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 능력을 알아보고, 언어연령일치 일반 아동과 수행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관용어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은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보다 관용어 이해 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동의 경우, 7-8세의 어린 아동들도 짧은 구 수준과 담화 수준에서 비유 언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으며(Cain, Towse, & Knight, 2009), 6세에 메타 화용능력이 나타난다(Laval, 2003). 그렇기 때문에 언어연령 일치 일반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맥과 관련하여 관용어를 이해할 수 있으나(박정희, 임종아, 2011; Lacroix et al., 2010), 지적장애인의 경우 문맥을 이용하여 관용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숙도에 따른 집단 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몇몇 연구자들(현혜숙, 2010; Cain, Oakhill, & Lemmon, 2005; Levorato & Cacciari, 1992)은 어린 아동일수록 친숙도가 관용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관용어의 친숙도 정도가 관용어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며 관용어에 노출된 것만으로는 관용어 습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속담을 이용한 오소정(2001)과 Nippold와 Haq(1996)의 연구에 따르면 친숙도에 따른 속담 이해는 청소년기부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Nippold와 Taylor(2002)는 11세 아동들과 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친숙도와 투명도를 직접 평정하도록 한 후에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친숙도를 매우 높게 평정한 관용어 중에서도 이해과제에서 오류를 보인 관용어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관용어를 접할 기회가 있지만 그것이 관용어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은 관용어에 대한 비유적 감각은 있으나 의미의 비합성성이 특징인 관용어를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용어는 의미의 비합성성으로 전체 구성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어휘소 자격을 갖는다(문금현, 1999).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를 이해할 때는 문맥이나 발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추론해야 하는데 문맥의 활용도가 낮은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은 문맥에서 관용어의 추론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친숙도와 관계없이 어려워하였을 것이다. 현혜숙(2010)은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문맥의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즉 문맥으로부터 추론과 종합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Nippold, Allen과 Kirsch(2002)는 속담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지능, 추상적 추론능력, 구어능력 및 문화적 지식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은유의 이해와 관련한 요인들로 신후남(2010)은 인지능력, 이해 언어능력, 읽기 이해능력, 유추 추론능력, 어휘 지식, 마음 이론 등을 포함한 언어학적, 상위언어학적, 비언어학적 요인들이 아동의 은유 이해에 작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용어, 속담, 은유 등의 비유 언어(Figurative language)는 비유 언어 자체만으로 그 뜻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문맥의 활용도 및 추론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은 문맥의 활용 및 추론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므로 친숙도와 관계없이 관용어 이해를 어려워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투명도에 따른 집단 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투명한 관용어가 불투명한 관용어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결과(Gibbs, 1987, 1991; Nippold & Rudzinski, 1993; Nippold & Talyor, 2002)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에 따라 투명도에 따른 이해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투명한 관용어에서 불투명한 관용어보다 이해점수가 높았지만, 지적장애 성인의 경우에는 투명한 관용어보다 불투명한 관용어에서 이해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와 같이 집단에 따라 투명도에 따른 이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불투명한 관용어의 이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Abrahamsen과 Burke Williams(2004)의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학습장애 아동 모두 투명한 관용어보다 불투명한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소정(2001)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 성인 세 집단 모두 투명한 속담보다 불투명한 속담을 더 쉽게 이해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이 아동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현혜숙(2010)의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은 투명한 관용어보다 불투명한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하며 읽기부진 아동은 불투명한 관용어보다 투명한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관용어의 이해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Abrahamsen과 Burke-Williams(2004)는 불투명한 관용어를 이해할 때 문자적 의미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어를 하나의 낱말처럼 덩

어리로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Rumelhart(1993)는 은유를 해석하는 과정과 새로운 낱말을 습득하는 과정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는 은유가 일반 낱말의 습득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습득됨을 암시한다. 이러한 가설을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이 관용어의 투명도와 관계없이 관용어를 하나의 낱말로 습득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관용어에서 더 이해 점수가 높을 수 있으며, 낮은 낱말 습득 능력이 관용어의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관용어 이해과제에서 나타난 오류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 일반 아동 모두 문맥과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Abrahamsen과 Burke-Williams(2004)는 학습장애 아동들이 문맥을 듣고 관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과제에서 문맥과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관용어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하지만 이해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박정희와 임종아(2011)는 초6, 중1, 고1, 20대 성인 모든 연령 집단에서 속담과 관련된 오답을 가장 많이 보였고, 그 다음으로 속담과 관련 없는 오답, 문자적 오답 순이었다고 한다.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속담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으며, 그 의미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맥과 관련된 오류 다음으로 경도 지적장애 성인은 문자적 오류, 문맥과 관련 없는 오류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 아동은 문자적 오류와 문맥과 관련 없는 오류가 매우 적어서 (각각 2개)로 경도 지적장애 성인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김하늬(2012)와 현혜숙(2010)은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관용어 오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문맥과 관련된 오류, 문자적인 오류, 문맥과 관련 없는 오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아동은 문맥과 관련된 오류, 문맥과 관련 없는 오류, 문자적인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문맥활용능력이 부족하여 문맥 상황에서도 문자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김하늬, 2012). 또한 홍윤희(2001), Nippold와 Fey(1983)의 연구에서도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학습장애 아동 모두가 일반 아동에 비해 문맥과 관련 없는 오류보다 문자적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친숙하지 않거나 불투명한 관용어를 해석할 때 일반 아동들은 문맥이나 발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추론하지만,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자적 오류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에 비해 일반 아동들은 관용어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거의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은 다른 장애군에 비해 활발하게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며 일반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관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경도 지적장애 성인들이 그들보다 생활연령이 낮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언어연령이 유사한 일반 아동보다 관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언어 능력 평가와 중재에 관용어 이해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관용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용어 이해와 관련된 문맥 활용 및 추론 능력과 비유 의미 유추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재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경도 지적장애 성인 13명, 일반 아동 13명으로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었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직장 근무 기간과 연령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나 각 조건에 포함된 문항수가 집단 간 비교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다면 지적장애 성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박혜원·김청택(2001). **한국판 웨슬러 아동 지능검사-III(K-WISC-III)**. 서울 : 도서출판특수교육.
- 구효진(2011).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태 · 홍경훈 · 김경희 · 장혜성 · 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검사**. 서울 : 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하늬(2012).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맥유무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 비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 : 태학사.
- 박영준 · 최경봉 편저(2002). **관용어 사전**. 서울 : 태학사.
- 박정희 · 임종아(2011). 문맥 유무에 따른 속담 이해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16, 559-569.
- 배소영 · 임선숙 · 이지희 · 장혜성(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정수(1982). 은유적 표현의 이해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소연(2008). 청각장애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현아(2008).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선미(2006). 효과적인 국어 관용어 지도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중호 · 이강희(2002). 일반아동과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상황, 조건, 인과관계에 대한 언어이해능력 비교 연구. **특수교육**, 47-69.

4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4호)

- 신후남(2010). 비언어성 학습장애 아동의 은유 이해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소정(2001). 속담 이해능력의 발달: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순(2004). 초등 국어교육에서의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주(2002).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숙·박소영(2010). 관용어의 친숙도, 성별, 학업성취도가 관용어 이해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2), 466-475.
- 임혜진(2007). 학습자 수준별 관용표현 교수항목에 대한 연구: 의미 투명도와 사용 빈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병운(1995). 정신지체 아동의 화용능력 발달 연구. **특수교육논총**, 12, 185-210.
- 전병운(1996). 정신지체 아동의 화용능력 발달 연구. **특수교육논총**, 13(1), 1-32.
- 조혜인(2011). 한국어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송아(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관용어 이해 능력 비교 분석.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세경(2004). 초등학교 국어과 관용어 지도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현혜숙(2010).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문맥 유무 및 관용어 유형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윤희(2001).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은유 이해능력 비교: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rahamsen, E. P., & Burke-Williams, D. (2004). Comprehension of idioms by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Metaphoric transparency and syntactic frozennes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3, 203-215.
- Ackerman. (1982). On comprehending idioms: Do children get the pictur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3, 439-454.
- Cacciari, C., & Levorato, M. C. (1989). How children understand idioms in discourse. *Journal of Child Language*, 16, 387-405.
- Caillies, S., & Le Sourn-Bissaoui, S. (2006). Idiom comprehension in French children: A cock-and-bull stor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 189-206
- Cain, K., Oakhill, J., & Lemmon, K. (2005).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level and their comprehension of idiom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0, 65-87.
- Cain, K., Towse, A. S., & Knight, R. S. (2009). The development of idiom comprehension: An investigation of semantic and contextual processing skill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2, 280-98.
- Gibbs, R. W. (1987). Linguistic factor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idioms. *Journal of Child Language*, 14, 569-86.
- Gibbs, R. W. (1991). Semantic analyzability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idioms.

-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613-20.
- Higham, J., Wegmann, J., Woods, J. (1999). Visual and verbal metaphors among children with typical language and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2, 25-35.
- Kemper, S. (1986). Inferential processing and the comprehension of idioms.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1), 43-55.
- Laval, V. (2003). Idiom comprehension and metapragmatic knowledge in French children. *Journal of Pragmatics*, 35, 723-739.
- Lazar, R. T., Warr-Leeper, G. A., Nicholson, C. B., & Johnson, S. (1989). Elementary school teachers' use of multiple meaning expressions. *Language, Speech &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0, 420-426.
- Levorato, M. C., & Cacciari, C. (1992). Children's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dioms: The role context and familiarity. *Journal of Child Language*, 19, 415-433.
- Levorato, M. C., & Cacciari, C. (1995). The effect of different tasks on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dioms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261-283.
- Levorato, M. C., & Cacciari, C. (1999). Idiom comprehension in children: Are the effects of semantic analysability and context separable? *Europea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11, 51-66.
- Lodge, D. N., & Leach, E. A. (1975). Children's acquisition of idioms in the English language. *Journal of Speech Hearing Research*, 18, 521-529.
- Milosky, L. (1994). Developing nonliteral language abilities: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In Wallach, G. & Butler, K. (eds.)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in school -age children and adolescents: Some underly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s*. Columbus, Oh: Merrill.
- Nippold, M. A. (1991). Evaluating and enhancing idiom comprehension in language-disordered student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2, 100-106.
- Nippold, M. A. (1998). *Later language development: Ages 9 through 19*. Little, Brown: Boston.
- Nippold, M. A., Allen, M. M., & Kirsch, D. I. (2002). How adolescent comprehend unfamiliar proverbs: The role of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 621-630.
- Nippold, M. A., & Fey, S. H. (1983). Metaphoric understanding in preadolescents having a history of language acquisition difficulti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4, 171-180.
- Nippold, M. A., & Haq, F. S. (1996). Proverb comprehension in youth: The role of concreteness and familiar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 Research*, 39, 166-176.
- Nippold, M. A., & Rudzinski. (1993).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in idiom explanation. A development stud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6, 728-737.
- Nippold, M. A., & Taylor, C. L. (1995). Idiom understanding in youth: Further examination of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8, 426-433.
- Nippold, M. A., & Taylor, C. L. (2002). Judgments of Idiom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A comparis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5, 348-391.
- Nippold, M. A., Taylor, C. L., & Baker, J. M. (1996). Idiom understanding in Australian youth: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9, 442-447.
- Prinz, P. M. (1983). The development of idiomatic meaning in children. *Language and Speech*. 26, 263-272.
- Rumelhart, D. E. (1993). Some problems with the notion of literal meaning.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diom Understanding of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Oh Jin Young

Dep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Eun-ju Lee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diom understanding according to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of the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were investigated. The subjects were 13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13 normal children with the same language age in Seoul, Gyeonggi, and Daejeon. Experimental tasks consisted of familiar-transparent idioms, familiar-opaque idioms, unfamiliar-transparent idioms and unfamiliar-opaque idioms. The multiple choice selection tasks were presented for idiom understanding. Each example contained idiomatic interpretation, contextual plausible interpretation, contextual implausible interpretation and literal interpretation. It carried out the mixed three-way ANOVA tes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depending on the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idiom understanding score of general childre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re isn'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miliarity and transparency. In particular,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tend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idioms related with context and next literally. The results are further discussed regarding figurative language comprehension and reasoning ability.

Key Words :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idioms, figurative language

논문 접수: 2014. 11. 05 심사 시작: 2014. 11. 10 게재 확정: 2014. 12. 15

<부록 1>

관용어 목록

	관용어 목록
친숙 O, 투명 O	눈이 높다 귀를 기울이다 눈앞이 캄캄하다 눈 깜짝 할 사이 기가 막히다
친숙 O, 투명 X	한턱내다 오지랖이 넓다 시치미 떴다 바람 맞다 애쓰다
친숙 X, 투명 O	문턱이 닳도록 엉덩이를 붙이다 땅을 칠 노릇 눈총을 받다 눈길을 모으다
친숙 X, 투명 X	배꼽을 잡다 혀를 내두르다 성을 갈다 학을 떴다 말짱 도루묵